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 담양군 농식품, 뛰어난 맛 . 우수한 품질로 美 시장 공략

### 관촉행사 등 다양한 홍보 통해 수출매장 확보



담양군의 농식품이 뛰어난 맛과 우수한 품질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뉴저지 주 HanNam Chain Mart에서 담양 농특산품을 미국 내 한인

들에게 알리는 대대적인 관촉행사를 진행했으며 현지 시장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 행사는 미국시장에 대숲맑은 담양쌀, 안복자한파, 참사랑맛김, 고려진통식품 등 지역 농식품의 우수

성을 홍보하고 수출 상품을 모니터 할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한인시장을 목표로 한 '대숲맑은 담양쌀' 수출은 미국 뉴저지 주 14만 여명의 한인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쌀로 각인시켰으며 매년 20여 톤을 지속적으로 수출해, 참사랑맛김과 더불어 식탁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미국 뉴저지주 HanNam Chain Mart로 관촉 홍보되는 식품은 4개 업체 12가지 품목, 총 18만 달러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대숲맑은 담양쌀을 비롯해 담양 농식품의 세계화는 이미 시작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교육과 조직화로 고품질 농식품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전략적 브랜드 마케팅으로 담양 농식품의 명성을 세계에 드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곡성군, 2018년 친환경농업대상 '우수상' 선정

곡성군은 전남도 주관 2018년 친환경농업대상 평가(이하 '친환경평가')에서 우수상에 선정되어 1월 중에 수상을 앞두고 있다. 친환경평가는 전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친환경 농산물인증 실적, 친환경농업 정책추진 열의도, 흙 살리기, 판매촉진 지원, 소비자 신뢰 확보 대책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곡성군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1,649ha)과 흙 살리기 복비작물 파종(900ha), 도내 유기질비료 공급실적(626,585포), 친환경 쌀 판매촉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2018년 친환경농산물 유기 인증면적이 전년 대비 88ha가 증가해 친환경인증 내실화에 성과를 냈으며, 대도시 친환경 학교급식 쌀 납품을 위한 택배비, 생산 장려금 지원 등으로 농산물 판매촉진에도 적

극 노력한 결과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곡성군은 금번 우수상 수상으로 확보한 상사업비 3,500만원을 친환경농업 육성시책 추진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금년에도 친환경인증 내실화 확대와 차별화된 기능성 농특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희 기자

## 화순군, 2018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화순군이 최근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62개 기관이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가운데 화순군은 우수 지방자치단체 지정 특전(인센티브)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화순군은 주민참여와 민·관 거버넌스 구축 노력, 청년정책·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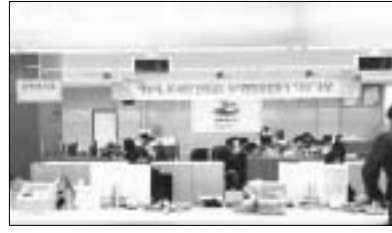
고용정책·도시재생 등 정책 추진 성과, 일하는 방식 혁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은 군정 혁신을 위해 상황식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지역사회 군정 참여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거버넌스를 실현했다. 그 결과 실행계획의 충실성, 청년이 돌아오는 청년정책 추진,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실적 등에서 혁신 추진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지역의 안정과 군민화합을 바탕으로 군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군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혁신에 혁신을 해왔다"며 "미래 화순 발전에 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군정 혁신을 위한 도전과 열정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 여수시, 올해도 화요일은 민원업무 '오후 8시까지'

### 화요 야간 민원실 운영·여권·증명서발급·지역민원 등



여수시는 시민들에게 호응이 높은 화요 야간 행복민원실을 올해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요 야간 민원실은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매주 화요일 민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시책이다. 퇴근 시간 이후 각종 증명서류 발급은 물론 여권업무, 가족관계 등록 신고, 지적관련 민원 등 대부분의 민원업무 처리할 수 있어 직장인과 학생들의 호응이 높았다.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민원 처리건수는 1300여 건으로 연장시간 2시간 동안 평균 30여 명이 민원업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여권관련 민원은 970건(75%)으로 가장 많았고, 증명서류 발급은 153건이었다. 시는 최근 해외여행자가 늘어 여권발급 수요가 늘었고, 여권민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퇴근 후 야간 민원실을 많이 찾은 것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도 화요 야간 민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여수=송기홍 기자

## '왕인문화축제' 국가축제 5년 연속 선정

영암왕인문화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유망축제)로 선정됐다. 왕인문화축제는 이로써 지난 2015년 이후 인물 축제로서는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5년 연속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게 됐다. 왕인문화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 41개에 포함되어 예산과 함께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국내외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 받게 된다. 아울러, 지역축제가 지속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다양한 특색을 갖춘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문체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왕인문화축제 세계화"와 "우수축제로 도약을 위해 글로벌

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1만여명의 외국인 관광객 대거 유치 명품 프로그램 개발 및 차별화된 향토음식 판매관 운영 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은 '왕인문화축제 세계화' 계획으로 한·일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왕인문화축제의 킬러콘텐츠인 왕인박사 도일행렬과 일본 간지키시의 마쓰리 환영행렬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상호 대규모 방문단이 참여하는 왕인박사 관련 주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 고품질 농·특산물 판매 및 향토음식판매관 고급화와 함께 축제장 브릿지 타임 때 농·특산물 깜짝 경매와 택배서비스를 운영하며, 11개 읍·면 향토음식관을 대

형 TFS센터로 고급화할 계획도 세웠다. 군은 특히 외국여행자 및 파워블로거 등 글로벌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1만여명을 유치하고, 해외홍보물을 사전 제작해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및 국외여행업체 등에 발송하는 한편, 외신기자단 팸 투어 및 여행사에 특화된 투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홍보마케팅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군 축제담당자는 "5년 연속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로 선정된 만큼 이제 '우수축제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외국인 관광객 유치 행사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명품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축제의 세계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 진도군, 군민 겨울피해 최소화 위한 바람막이 쉼터 운영



진도군이 겨울철 도보를 이용하는 군민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한파 기림막 바람막이 쉼터 4개소를 작년 12월부터 설치·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바람막이 쉼터는 예산 300여만원을 투입, 유동인구 밀집장소에 설치

됐으며, 외부시야 확보를 위해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 졌다. 여름철에는 무더위 그늘막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바람막이 쉼터를 이용한 주민은 "겨울이면 거리에 나서기 쉽지 않았는데 쉼터를 보니 반갑다"며 "작은

가림막이지만 마음까지 따뜻해진다"고 말했다. 진도군 안전건설과 재난관리담당 관계자는 "최소한 바람막이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보행자를 배려할 수 있는 쉼터가 만들어지게 됐다"며 "한파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한파에 취약한 고령자, 임산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여름철 폭염대피소로 운영하던 마을경로당을 겨울철 '한파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을 한파쉼터 27개소에 머물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생활관리사 등 재난도우미를 운영해 취약계층 집중 관리로 한파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 친환경 천연 창성찬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고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

장성군

장성군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